

다니엘서 - 번호 38

보석의 베일을 건다: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꿈과 진리의 회복

Jeff Pippenger

2024-01-02

밀러는 꿈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한 상자를 건네받았다. 그 꿈에서 그는 그 상자의 치수를 '육의 제곱' 곱하기 '10인치'로 이해하도록 이끌렸다. 10에 6을 제곱한 값을 곱하면 360이 되는데, 이는 성경 예언에서 말하는 한 해의 날 수를 나타낸다. 밀러는 자신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담은 상자를 받았고, 그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일 년을 의미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있었다. 그 상자는 성경을 가리켰으며, 밀러에게 성경은 성경 예언의 '하루=일 년' 원칙의 관점에서 보아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보배로운 상자를 여는 열쇠가 있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나는 비쳐 오는 모든 빛줄기에 감사한다. 미래에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신비롭게 보이는 경험들이 설명될 것이다. 몇몇 경험은 이 죽을 몸이 불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결코 완전히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7, 261.

밀러의 꿈에서 관에는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밀러가 채택하도록 이끌린 방법론을 상징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들은 밀러가 채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예언들과 예언적 연대기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작은 책에서 밀러는 성경 연구와 해석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고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한다:

[규칙 1부터 5까지 인용됨.]

"위의 내용은 이 규칙들의 일부이며,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 모두는 제시된 원칙들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84년 11월 25일.

밀러가 보석함을 열었을 때, 그는 "온갖 종류와 크기의 보석들, 다이아몬드, 진귀한 보석들, 그리고 크기와 가치가 제각각인 금화와 은화가 보석함 안의 각기 제자리에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렇게 배열된 그것들은 태양에만 견줄 수 있는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밀러는 재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의 보석들을 찾아냈다. 그가 찾아낸 진리들은 완전한 질서로 "배열"되어 있었고 태양의 빛을 반사했다.

그때 밀러는 그 진리들을 "가운데 탁자 위에" 놓고 모두에게 "와서 보라"고 불렀다. "와서 보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이 열릴 때 차용된 상징이며, 밀러는 1798년에 봉함이 풀린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한다. 밀러가 탁자 위에 놓은 진리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함이 풀린 다니엘서의 진리들이었고, 그것들은 그 봉함이 풀리던 때 살아 있던 세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처음 네 인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과 밀러는 그 세대에게 "와서 보라"고 외쳤다.

어린 양이 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우레 같은 소리로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와서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더라. 둘째 인을 여실 때에 내가 둘째 생물이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들었더니, 다른 말, 붉은 말이 나왔고 그 위에 탄 자에게는 땅에서 화평을 빼앗아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더라. 셋째 인을 여실 때에 내가 셋째 생물이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들었더니,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내가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한 음성이 '밀 한 되가 한 페니요, 보리 석 되가 한 페니다. 그러나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더라. 넷째 인을 여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이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들었더니, 내가 보니 창백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들에게는 땅의 사분의 일에 대하여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요한계시록 6:1-8.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의 봉인을 떼셨고, 밀러가 탁자 위에 놓아둔 보석들의 봉인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떼셨으며, 이어 모든 이에게 "와서 보라"고 선포하셨다.

그가 발견한 진리들은 1843년 선구자 도표에 도해되어 제시되었는데, 화이트 자매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보이지 않는 같은 손은 밀러에게 보석으로 가득한 상자를 가져다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1842년에 제작된 300장의 도표는 하박국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하라"고 명한 말씀의 성취였다. 그의 방 중앙에 있던 밀러의 탁자는 밀러파 전도자들이 1842년과 1843년에 세상에 가지고 나갔던 300장의 도표(표)를 상징했다. 그 도표는 1850년 선구자 도표와 함께 하박국 2장의 "판들"이었다.

"'본래의 믿음' 위에 서 있던 재림 강연자들과 정기간행물들의 일치된 증언은, 도표의 출판이 하박국 2:2, 3의 성취라는 것이었다. 만일 그 도표가 예언의 한 주제였다면(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본래의 믿음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기원전 457년이 2300일의 기산점이 되는 해였다는 결론이 따른다. '그 이상'이 '더딜' 것, 곧 더딤의 때가 있어야 하였으므로, 1843년이 처음으로 공표된 시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처녀들의 무리는, 그들이 한밤중의 외침으로 깨움을 받기 직전에, 시간에 관한 이 중대한 주제 위에서 졸며 자게 되어 있었다." James White, Second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Volume 1, Number 2.

그 후 하박국의 판에 제시된 메시지(보석들)에 응답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1840년 8월 11일에 하루를 일 년으로 보는 원칙이 확증되면서 사람들은 "무리로 늘어났다."

"바로 지정된 그대에, 터키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자신을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 사건은 그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허다한 사람들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채택한 예언 해석의 원칙들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추진력이 더해졌다. 학식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이 밀러와 연합하여 그의 견해를 전파하고 출판하였으며, 1840년부터 1844년까지 그 사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34, 335.

그때 군중은 보석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밀러는 보석들의 흩어짐을 지적한다.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의 주요 상징 가운데 하나이며, 밀러는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흩어지다'라는 단어의 변형을 열 차례 사용한다. '열'은 시험의 상징으로, 세상 끝이 임한 이들에게 밀러의 '흩어진' 보석들의 상징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을 예언적 시험으로 표시한다.

1863년에 엘리야(밀러)가 제시한 모세의 "흩어짐"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일곱 때"의 보석을 거절했는데, 이것이 그들이 제쳐놓은 첫 번째 보석이었다. 그때부터 보석들은 점점 더 흩어져 가짜들과 뒤섞이고, 마침내 완전히 덮여 버리게 되었다. 소중한 보석들을 덮어 감추는 일은 결국 보석함(성경)이 파괴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밀러의 꿈에는 밀러가 "scatter"라는 단어를 처음 "일곱 번" 사용하는 부분과 그가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세 번 사용하는 부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가 "scatter"를 "일곱 번" 언급한 뒤 그는 "완전히 낙담하고 의기소침해져 앉아 울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의 봉인을 여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은 울었다. 보석함(하나님의 말씀)이 가짜 보석들에 파묻혀 버렸음을 깨달았을 때, 요한과 밀러는 모두 울었다.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이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또 힘센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였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고 그 인들을 풀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두루마리를 열어 읽거나 보기에 합당한 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크게 울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일곱 인을 푸실 수 있게 되셨다." 요한계시록 5:1-5.

밀러가 발견하여 세상에 제시한 보석들에 대한 거부가 점점 거세져 성경(보석함)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자, 밀러는 울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진짜 보석과 주화 사이에 무수한 가짜 보석과 위조 주화를 흩뿌려 놓았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행실과 배은망덕함에 크게 격분하여 이를 두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내가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그들은 진짜 것들 사이에 가짜 보석과 가짜 주화를 더 많이 흩뿌렸다.

그때 나는 내 육체의 혼이 괴로워져 물리력으로 그들을 방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를 몰아내는 사이에 셋이 더 들어와 먼지와 깎아낸 부스러기와 모래와 온갖 잡동사니를 들여와, 참된 보석들과 다이아몬드, 동전 하나하나를 모두 덮어버려 전부 보이지 않게 했다. 그들은 또 내 보석함을 산산이 부숴 그 쓰레기더미 속에 흩어놓았다. 아무도 내 슬픔이나 분노를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완전히 낙담하고 의기소침해져 주저앉아 울었다.

그의 꿈의 이 시점에서 "scatter"라는 단어가 "일곱 번" 사용되었다. 마지막 세 번의 발생은 처음의 일곱 번과는 구별되며, 그 일곱 번의 흩어짐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상징하는 예언적 표식을 부여한다. 밀러의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그 "일곱 때"를 식별한다.

요한계시록 5장의 요한이 그랬듯이, 밀러가 울었을 때,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유다 지파의 사자)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열 수 없어 요한을 울게 했던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책을 들고 계신 아버지의 시각적 묘사는 4장 1절에서 시작되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내게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여 주겠다." 요한계시록 4:1.

밀러는 울며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내가 큰 상실과 책임을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내게 도움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곧바로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그 방을 떠났다. 그는 손에 먼지 솔을 들고 창문을 열고, 방의 먼지와 잡동사니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먼지 솔을 든 사람은 요한과 밀러가 울 때 문이 열리는 순간에 나타났다. 문이 열리는 것은 경륜적 변화의 상징이다.

밀러도 울었고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는 또한 기도했다. "나는 완전히 낙담하고 의기소침해져 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울며 나의 큰 상실과 책임을 슬퍼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내게 도움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곧바로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떠났다. 그는 손에 먼지솔을 들고 창문을 열더니 방 안의 먼지와 잡동사니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마지막 때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는 기도는,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신실한 자들이 드린 기도이며, 또한 9장에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다. 그것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기도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자신들이 흩어졌음을 깨달을 때 드려야 할 것이다. 두 증인은 모세의 저주가 성취되어 자신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9장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을 반복해야 한다. 두 증인은 또한, 그의 보석들이 '일곱 때'에 걸쳐 흩어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밀러가 꿈에서 묘사한 것을 반복해야 한다.

그 기도가 표시되면 문이 열리고, 빗자루 든 사람이 도착하며, 방은 비어 있다. 사악한 무리는 사라졌고, 새로운 경륜이 도래했다. 그때 손에 부채를 들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창문을 열고, 방 안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자, 가짜 보석과 위조 주화가 모두 구름처럼 떠올라 창문 밖으로 나가 버렸고, 바람이 그것들을 실어 갔다."

열려 있는 창들은 또한 하나의 구분을 표시하는데, 창문으로 잡동사니가 실려 나가듯이, 말라기에 기록된 명령(마지막 날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제 이 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 그것을 담을 곳이 없을 만큼 하게 하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지시하는)을 이행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열린 문과 열린 창은 악한 제사장들이 제거되고 의로운 제사장들이 복을 받는 때에 성취되는

경륜의 변화를 나타낸다.

먼지 빗자루를 든 남자가 바닥을 말끔히 쓸어 치우기 시작하자, 밀러는 잠시 눈을 감는다. "소란스러운 와중에 나는 잠깐 눈을 감았고, 눈을 뜨니 쓰레기는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귀중한 보석들, 다이아몬드, 금화와 은화가 방 안 가득 널려 있었다." 그리하여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완전히 갈라졌다.

그 더 큰 보석함이 탁자 위에 놓였고, 흩어져 있던 보석들이 그 안에 던져 넣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앞의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아름다운 보석함을 탁자 위에 놓고, 보석들과 다이아몬드, 동전들을 한 줍씩 거두어 보석함에 던져 넣었는데, 어떤 다이아몬드는 바늘끝보다 크지 않았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밀러의 기초적 진리들은 그다음 성경뿐 아니라 예언의 영광도 함께 한데 모아졌고, 그 진리들은 처음보다 더 아름답고 더 밝아졌다.

1798년에 봉인이 풀린 메시지의 관점에서 올라이 강의 환상을 평가할 때, 그 진리들 가운데 일부는 밀러에게 주어진 틀에 의해 제한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해 그 진리들 가운데 일부는 비록 작거나 사소해 보일지라도 더 크고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진리들이 회복되면 그것들은 더 큰 상자에 담기고, 그다음에는 밀러가 아니라 그리스도(먼지 털이 빗자루를 든 사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분)에 의해 "와서 보라"라는 부름이 다시금 주어진다. 이는 봉인 해제가 방금 일어났음을 나타내며, 최종 봉인 해제는 유예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거나, 화이트 자매의 표현대로라면 먼지 털이 빗자루를 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이다.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광경에 눈이 부셨다. 그것들은 이전보다 열 배나 더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먼지 속에 흩뜨리고 짓밟았던 그 사악한 자들의 발에 의해 모래에서 문질러져 닳았다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상자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그것들을 던져 넣은 사람의 눈에 띄는 수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큰 기쁨에 겨워 소리쳤고, 그 외침에 나는 깨어났다." 초기 저술, 83.

지체의 때와 첫 번째 실망은 2020년 7월 18일에 도래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의 봉인을 떼어 오고 있다. 그 봉인 해제에는 다니엘서도 포함되며, 우리는 다음 글에서 밀러의 꿈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할 것이다.

먼지 솔질하는 사람의 일은 '지혜로운 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수행되며, 그 '제사장들'의 일, 곧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자 에스겔 37장의 부활한 마른 뼈들인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선들로도 나타난다. 우리는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꿈에 관해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입증하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그 선들 가운데 몇 가지를 활용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의에 대한 교훈을 받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귀한 빛줄기들이 오류의 구름에 가려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류와 미신의 안개를 걷어내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가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출판 사역, 68.